2022년 학생대상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요약본

I. 조사의 목적

현 설문조사는 2022년 KDI국제정책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며, 해당 설문조사를 통하여,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포함한 인권 감수성 현황 및 교내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함이다.

무엇보다 외국인 재학생률이 41.8% (2021년 대학정보공시 기준[1])인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문화권별 인식을 조사하고, 향후 인권침해 피해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한다.

II. 조사 개요

- **대상**: KDI국제정책대학원 석사 박사 재학생[2] (2022년 7월 기준)
- **조사기간**: 2022년 7월 27일 ~ 2022년 8월 4일까지
- **응답자수**: 130명
- **응답률**: 20.7%, (**130/629**[3])
- **조사방법**: 구글 온라인 설문조사 시행

III. 조사 결과 요약

□ 응답자 특성 및 성•인권 관련 현황 분석

- 해당 조사는 KDI국제정책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, 총 130명이 응답함. **응답자 130명** 중 **51.5%**가 **남자**였으며, **48.5%**가 **여자**임. 응답자는 **대한민국 문화권**이 **47.7%**로 가장 많았으며, **동남아시아 문화권**이 **20.8%, 아프리카 문화권**이 **15.4%** 순으로 참여함.

- 해당 조사 응답자 중 **45.4%**는 자신의 **인권 감수성**을 **매우 높음**으로 평가하였으며, **성인지 감수성**에 관하여는 **46.2%**가 **높음**으로 자가 평가함. 끝으로, 해당 응답자의 **46.9%**가 자신의 **국제사회 내 발생 인권 관련 이슈 관심도**가 **높음**으로 자가 평가함.

---

1) (외국인학생수/전체 재학생 수)
2) 휴학생 미포함
3) 설문 응답자: 2022년 7.26일 기준 전체 재학생

○ 응답자가 생각하는 **인권침해 발생 원인**은 **인권침해의 이해도 부족**이 **40%**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**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발생 원인** 또한 **인권침해에 이해도 부족**이 **36.2%**로 가장 높게 나타남.

○ 응답자의 **77.7%**는 과거 인권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으며, 해당 응답 중 **온라인 교육 이수**가 **39.6%**, 오프라인 23.8%, 둘다가 36.6%로 나타남. 응답자의 해당 교육을 이수하게 된 계기는 **교육 의무 사항**이 **47.6%**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, 해당 교육을 통해 **65.3%**가 교육을 통해 **자신의 인권 의식이 높아졌다**고 평가함.

□ 성·인권 감수성 현황

○ 응답자의 **인권 감수성** 점수는 50점 만점의 평균[4] **39.06점 성인지 감수성** 점수는 90점 만점에 평균 **75.48점**으로 나타남.

□ 캠퍼스 내 성·인권 관련 환경 평가

○ 캠퍼스 내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도를 묻는 문항에서, **KDI대학원에서 나의 인권은 존중되고 있다**라고 **53.8%**의 응답자가 **매우 그렇다**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, **인권침해 문제에 관하여 불편함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**라는 문항에서 39.2%의 응답자가 **매우 그렇다**로 가장 높았음. 다만 **매우 아니다, 아니다**의 응답 또한 **3.8%, 8.5%**로 나타나, 응답자 중 일부는 인권 침해적 문제에 관하여 불편함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자가 부재 또는 적음을 알 수 있음.

○ **문화적 차이로 인한 불편감의 경험**에서 대다수의 응답자가 **매우 아니다(39.2%)**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지만,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 또한 13.1% 및 그렇다 11.5% 로 나타남.

○ **교수와 학생 간의 갑질 유무**에 관한 문항에서 **매우 아니다 65.4%,** 아니다 20%, 보통이다 10.8%, 그렇다 3.1%, 매우 그렇다 0.8% 순으로 나타남.

○ **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의 존재 유무**에 관한 응답은 **매우 아니다 53.8%,** 아니다 22.3%, 보통이다 13.8%, 그렇다 5.4%, 매우 그렇다 4.8% 순으로 나타남.

○ **갑질 또는 성폭력 외의 다름에 의한 인권침해(차별) 유무**에 관한 응답은 **매우 아니다 43.8%,** 아니다 23.1%, 보통이다 18.5%, 그렇다 9.2%, 매우 그렇다 5.4% 순으로 나타남.

□ 캠퍼스 내 성·인권 침해의 경험

○ **인권침해의 경험**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중 **강요의 경험**을 측정하는 문항에서 **8.5%**의 응답자가 **두발, 복장등의 간섭이나 강요, 차별, 놀림 등을 받은 경험**이

---

4) 산출식: {역문항수+(역문항최고점수-역문항점수)+정문항점수=개인별 총점수}/응답자수=평균 점수

있다고 응답하였으며, 이는 **100% 학생**에 의한 **강요의 경험**이었음. **원치 않는 모임 참여에 강요와 불이익에 관한 협박·강요받은 경험**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**0.8%**로 나타났으며, 이는 **100% 직원**에 의한 강요의 경험이었음. **음주 가무 및 분위기 띄우기 등의 특정 성역할의 강요 경험**은 **0.8%** 가 응답하였으며, 이는 **100% 학생**에 의한 **강요의 경험**이었음. 이와 같은 강요의 경험에 관하여 응답자들은 **주변인에게 부당함을 알리 것**이 **50%**로 가장 많았으며,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25%, 행위자에게 부당함을 알렸다 8%, 인권센터에 알렸다 8%, 기타 8% 순으로 나타남. 이 중 **"아무것도 하지 못했다"**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**66.7%**는 **해당 행위(강요)가 인권침해인지 당시 인지하지 못하였다**라고 응답하였으며, 33.3%는 서로 관계가 틀어지지 않길 바라여서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함.

○ 인권침해의 경험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 중 **차별의 경험**을 측정하는 문항에서 **본인의 사생활에 관하여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질문을 받거나, 그에 대한 차별 및 놀림 등을 받은 경험**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**11.5%**로 나타났으며 해당 침해는 **100% 학생**으로부터 경험하였다고 응답함. 해당 침해의 경험과 관련하여, **40%**의 응답자가 **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다**고 응답하였으며, 행위자에게 부당함을 알림이 26%, 주변인에게 부당함을 알림이 20%, 법적조치 7%, 주변인과 대응 7% 순으로 나타남. 이 중 "아무것도 하지 못했다"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**40%**가 **서로 관계가 틀어지지 않길 바라여서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하였다**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, 나에 대한 부정적 평판이 두려워서, 알려봤자 개선되는 것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서, 및 기타 의견이 각각 20%로 나타남.

○ 인권침해의 경험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중 **침해의 경험**을 측정하는 문항에서 **구성원으로부터 폭언 욕설 등 인격적 모욕감의 경험**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**3.8%**로 나타났으며, 해당 인권침해의 경험을 **100% 학생**으로부터 받은 경험이라 응답함. 또한 구성원으로부터 **신체적 폭력 또는 위협을 받은 경험**이 있는 응답자도 **1.5%**로 나타났으며, 이 또한 **100% 학생**으로부터 받은 경험이라 응답함. 다만, 침해의 경험에서 **위협적인 분위기 조성의 경험**에 관하여 예로 응답한 응답자는 **없음**. 해당 침해에 관한 경험에 대하여 **42.8%**가 **기타 의견**을 작성하였으며, 주변인에게 부당함을 알림이 28.6%, 행위자에게 부당함을 알림과 주변인과 함께 대응이 각각 14.3%로 종합하여 나타남.

○ 인권침해의 경험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 중 **스토킹의 경험**을 측정하는 문항에서 응답자의 **1.5%**가 구성원으로부터 학업 연구 근무 등 **업무 외의 사적 만남을 강요**당하거나 원치 않은 연락을 지속해서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, 이는 **100% 학생**으로부터 받은 경험이라 응답함. 또한, 구성원이 **원하지 않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거나, 집요하게 쫓아 오는 경험**이 있는지에 관한 문항에

서는 **3.8%**가 **예**로 응답하였으며, 이 또한 **100% 학생**으로 받은 경험이라 응답함. 해당 행위(스토킹)와 관련하여, 각 응답자는 **행위자에게 부당함을 알림**과 **주변인에게 부당함을 알림**을 **각각 42.8%**로 응답하였으며, 주변인과 함께 대응한 응답자는 14.3%로 나타남.

○ 기타 응답자가 **경험한 인권침해의 유형(중복체크)**은 **차별, 무시가 12명**, 스토킹 및 기타 행위가 7명, 성희롱·성폭력등 (성적자기결정권침해) 5명, 폭언 4명, 폭행/위협하는 행위 2명, 갑질•괴롭힘 등 2명의 순으로 나타났음.

○ **캠퍼스 내 학습권 및 노동권의 실태**를 측정하는 문항 중 **학업, 진로 관련 상담지원 부족이 11명**이 침해의 경험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습권 비보장이 6명, 교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학습권 비보장 및 특정 수업 수강 강요 또는 제한이 각각 4명, 교육과정 임의 변경 2명, 연구자원의 접근 제한 및 휴학 또는 자퇴 강요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남.

○ 이와 관련하여, **조교 등의 활동을 경험한 응답자** 중 본인의 **학습권 및 노동권이 적정범위를 넘어선 감시** 및 **부적절한 개인 업무지시**로 인하여 침해되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**각각 2명**, 그 외 상응하는 적정보수 미지급, 업무량 과다로 인한 근로시간 초과,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등으로 인한 침해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남.

□ 인권침해의 예방과 대응

○ **인권침해의 대응**과 관련하여 **인권센터에 알리어 조치를 취하겠다**고 응답한 자가 **51.5%**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, 가족, 친구, 지인들에게 알리고 도움 요청이 16.2%, 행위자에게 반박 등의 조치가 11.5% 순으로 나타남.

○ **인권침해 예방**과 관련하여, 응답자의 **42.3%**가 **교육, 캠페인, 홍보 등의 활동이 필요**하다고 응답하였고, 다음으로 행위자의 처벌이 33.8%, 소통창구 활성화가 16.9%로 나타남.

○ **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를 포함한 인권침해 예방**을 위하여 **36.2%**가 소규모 교육 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, 이어, 익명성 보장 소통창구 활성화 31.5%, 규정 개정을 통한 처벌등 강화가 29.2% 순으로 나타남.

○ 응답자는 **인권침해 발생 시 가장 필요한 것**으로 **재발 방지를 위한 기관을 노력(27.7%)**으로 응답하였으며, 이어 분리 조치 행위자 처벌 및 교육 이 각각 23.8%, 피해자 회복지원이 23.1%로 나타남.

○ 만약 **인권침해 발생 시, 위원회의 결정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결정이 내려질 경우 대처 방안**에 관한 문항에서, **39.2%**의 응답자가 **위원회의 결정에 이의제기 및 재 조사를 요청할 것**이라고 가장 많이 답하였으며, 다른 소통창구를 이용하여

행위의 부당함을 알린다가 21.5%로 나타남. 그 외 다른 분리 방안등을 요청한다 13.8%,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드린다가 12.3%, 법적대응을 한다가 10% 순으로 나타남.

☐ 인권침해의 목격(제3자 경험)

○ **인권 침해의 목격 경험**에 관하여 **10%**의 응답자가 **예**라고 응답하였으며, 이 중 **30.8%**의 응답자가, **차별, 무시등 과 스토킹을 목격**하였다고 응답함. 또한 이 중 23.1%의 응답자가 성희롱·성폭력 등 (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)등을 목격, 7.7%가 폭언을 목격하였다고 응답함. 이와 관련하여, 해당 목격자의 **61.5%는 피해자를 도와주었다고 응답**하였으며, 이 중 **23.1% 행위자에게 반박** 등을 하였다고 응답함. 그 외 주변인에게 도움 요청, 주변인과 함께 대응이 각각 7.7%, 기타가 7.7%로 나타남.

☐ 인권센터의 이용

○ **인권센터의 인지도를 묻는 문항**에 관하여 **83.1%**가 **예(알고있음)**로 응답하였으며, **16.9%는 아니오(모름)**로 응답함. 이중 인권센터를 인지한 응답자 중 **43.5%**는 **교육을 통해 인지**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, 31.5%는 포스터 및 안내 게시판을 통해 인지하게 되었다고 응답함. 그 외, 주변으로부터 9.3%, 카드뉴스 8.3%, 상담 및 신고 경험 5.6% 및 기타 1.8%로 나타남.

○ 응답자 중 **88.5%**는 **향후 인권침해 발생 시 인권센터를 이용할 의향이 있음**을 나타냈으며, 이중 **3.8%은 아니오**라고 응답함. 인권센터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 중 **29.6%**는 **비밀 유지**를 가장 바라였고, 모니터링/재발방지 조치(사후관리) 22.6%, 공정한 조사 20.9%, 피해자 보호(분리) 13.9%, 행위자 처벌을 위한 노력 9.6%, 제도개선 2.6%, 기타 0.9%로 순으로 나타남.

○ 응답자들이 인권센터 이용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**다른 사람이 내 신고 내용을 알거나, 내가 인권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알까봐**가 **23.1%**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 20.9%, 인권센터의 역할을 잘 알지 못함 19.8%,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17.4%,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15.7% 순으로 나타남.

○ 응답자들이 가장 바라는 인권센터의 역할(중복체크가능)은 **인권침해 발생 시 보고·소통 창구의 활성화**가 **74명**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이어 정서적 지지자의 역할 60명, 성인지·인권교육 활성화 51명, 피해자 보호조치제공(분리등) 49명, 볍률적 도움 제공 48명, 제도개선의 노력 41명, 모니터링을 통한 피해자/신고자 불이익 등의 확인, 행위자 제재 조치 각각 33명, 익명성을 보장한 실태조사 시행 26명 순으로 나타남.

Ⅳ. 조사결과의 시사점 요약 (이진원_고려대학교 인권·성평등센터 연구교수)

□ 인권 현황

○ 조사에 응답한 전체 구성원의 절반 이상은 KDI와 자신의 인권 상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 전반적인 **인권침해 경험**에서 **'경험 없음'**의 **비율이 높게 나타남**

○ 대 다수의 응답자는 **자신이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이 높다고 응답**함.

○ 다만, 구성원으로부터 **두발, 복장등의 간섭이나 강요, 차별, 놀림 등을 받은 경험, 원치 않는 모임 참여에 강요와 불이익에 관한 협박·강요받은 경험, 본인의 사생활에 관하여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질문을 받거나,** 그에 대한 **차별 및 놀림 등을 받은 경험, 구성원으로부터 폭언 욕설 등 인격적 모욕감의 경험등의 인권침해가 발생**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○ 또한 **스토킹, 사적만남 강요** 등의 다양한 형태의 **성희롱·성폭력을 경험**하고 있으며, **학내 구성원 간에 다양한 차별적 요소가 존재**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.

○ 캠퍼스 내 **학습권 및 노동권의 실태를 측정하는 문항**에서는 **학업, 진로 관련 상담지원 부족이 침해의 경험**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**학업코칭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.**
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다수의 강의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는데 **교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학습권 비보장, 특정 수업 수강 강요 또는 제한, 교육과정 임의 변경 등 충실한 수업을 받지 못하여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,** 비대면수업의 형태가 장기화 될 것을 대비하여 반드시 **개선이 필요해 보임.**

□ 인권침해 경험 결과 관련 대응 및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사항

○ 교육
- 응답자들은 **인권침해 예방**과 관련하여, 응답자의 42.3%가 **교육, 캠페인, 홍보 등의 활동이 필요**하다고 응답하였고 **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를 포함한 인권침해 예방**을 위하여 36.2%가 **소규모 교육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**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**인권교육 실시는 긍정적**으로 비춰지고 있고 **교육이 효**

과가 있음을 알 수 있음. 이에, 정기적 법정교육 이외 다양한 인권 이슈를 다루는 교육 제공을 통한 인권 의식 강화를 권고함.

○ 사건처리를 위한 기관 권한 및 역량 강화

-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학업이나 진로, 혹은 직원·교원의 경우 승진이나 근무평가 등 **2차 피해에 대한 염려 없이** 쉽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보호조치와 피해자 중심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**피해자 보호와 구제시스템을 강화**하는 것이 필요함. 이를 위해서는 **사건처리 기관의 권한 강화가 필요**하며, **추후에는 예산확대, 상담사 충원 등이 필요할** 것임.

○ 신고인 인식 개선 및 기관 홍보

- **교내기관을 이용하지 않겠다**는 이유가 **다른 사람이 내 신고 내용을 알거나, 내가 인권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알까봐**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**공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** 및 **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**한다는 답변을 보았을 때 **인권센터와 교내구성원의 신뢰도를 높이고 인권센터의 비밀보장, 2차피해 예방등의 기능을 포함한 역할을 구성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할 필요**가 있음.

또한 **인권센터의 역할을 잘 알지 못한다**는 의견도 20%나 대답한 것으로 보아 **점차적으로 신고인의 인식 개선**을 통해 **기관의 신뢰도를 높혀가는 계기**가 되었으면 함. 그리고 **제3자로서 인권침해를 목격하였을 때 익명으로 제보**를 할 수 있으므로, **이에 대해 알리는 것도 중요**해 보임.

○ 조직문화 및 환경 개선

- 인권침해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으로의 **조직적인 변화도 필요**해 보임. 많은 국내 대학원에서 작성하여 선포한 **'대학원생 권리장전'**과 같은 형식의 교내 구성원이 지켜야 할 'Human Rights Code of Conduct'을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**'인권 12계명'**과 같이 **사무실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**을 만들어 **인권존중 및 성평등한 근무환경 개선**을 위한 노력

○ 지속적인 인권침해 실태 조사 및 연구진행

- 구성원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구연구와 조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보다 **효과적인 인권정책과 제도운영, 교육프로그램 구성**을 해야 할 것임. 앞으로 **꾸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**를 실시하여 교내에서 발행하는 **인권실태 파악 및 인권보호 증진**에 앞장서야 할 것임.

□ 조사 결과 평가

○ 개인의 구체적 권리침해에 관한 조사 미흡

○ 응답률의 개선 (참여율 향상)

○ 대한민국 국적의 구성원과 외국 국적의 구성원을 따로 구분하여 설문을 통한 외국인 구성원이 겪는 어려움 조사가 어려웠음

○ 교원 및 직원의 인권침해 실태 파악도 필요함

○ 일회성 조사가 아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기 조사를 실시하여, 학내 인권상황 파악을 통한 인권 의식 전환과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제도의 발전이 필요함

○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내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 노력이 필요함.

V. 향후 계획

○ 교원 및 직원 인권침해 실태조사 시행

○ 정기적 조사를 통한, 조직 내 인식도 개선 현황 등을 파악 예정

○ 참여율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기간 변경 및 참여자 사은품 증정 등을 통한 응답률 개선

○ 구체적 권리침해에 관한 조사 문항 시행 (예: 어떠한 상황이였는지 등의 확인)

○ 향후 조사 시행 시, 설문지 문항을 분리 후 시행하여 외국인 구성원의 고충과 대한민국 국적 구성원의 고충을 분리 후, 고충에 따른 구제조치 제공

○ 정기적 소규모 교육 최소 연 2회 시행 등의 노력